

# 무등산국립공원 10년...멸종위기종 증가, 훼손지 복원 박차

### 붉은박쥐·상제나비 등 멸종위기종 19종 증가 평두메습지 복원...야생생물들, 습지로 돌아와 '방치 목장·군부대 주둔 정상' 식생 복원 과제

무등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10년 동안 멸종위기종 19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방치된 목장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에 '도심 속 휴식처' 역할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우고 있다.

#### ◇ 멸종위기종 19종 증가...생태 가치 향상

무등산은 지난 2013년 국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 7만5425km<sup>2</sup>·해발 1180여m 규모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매년 탐방객 200~3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19종 늘었다.

지정 전에는 멸종위기생물 10종(동물 8종·식물 2종)이 살았다. 지정 이후엔 붉은박쥐·상제나비·담비 등 동물 17종과 가시오갈피나무·대홍란·석곡·으름나초 식물 4종(2종 멸종위기종 제외)이 늘었다.

무등산에 서식하는 동식물도 국립공원 지정 전 2296종에서 4108종으로 1.8배 늘었다.

현재 무등산엔 식물 1729종과 동물 1637종(곤충 1477종,조류 133종, 포유류 31종, 어류 29종, 파충류 16종, 양서류 13종)이 살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가 복원되면서 습지 서식 생물도 5종 늘었다. 삼과수달 같은 멸종위기종 서식도 확인됐다.

#### ◇ '콘크리트 덩어리·외래종' 훼손지 복원 젠길음

무등산 생태 가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군부대가 주둔한 정상부와 방치된 목장 등 훼손지에 대한 복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 화순군 수만리 일대(13만 2420m<sup>2</sup>)엔 3년 전 문을 닫은 흑염소 목장이 방치돼 있다.

넓은 대지엔 생태계교란 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 농성을 따라 설치된 3km길이의 울타리와 콘크리트 덩어리도 생물의 이동과 번식을

막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올해부터 목장 내 울타리·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한다. 또 기존 습지를 복원하고, 방치된 축사를 활용해 생태교육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정상부는 지난 1966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상절리 일부가 깎이거나 식생 환경이 훼손됐다.

현재 무등산 3개 정상(지왕봉·인왕봉·천왕봉)엔 군부대 시설, 철책 등이 들어서 있다. 지면도상 해발고도 1187m였던 천왕봉은 콘크리트로 구조물로 인해 약 4m가 깎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정상부 주변 철책을 제거하고 서식대·인왕봉 탐방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부대 이전 이후 정상부 훼손현황·토양·식생구조를 정확히 조사해 식생 복원도 추진한다.

정상부엔 약 377종의 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갈나무·낙엽활엽수 등 4개 군락과 국내 특이종들도 서식한다.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방제도 지속하고 있다. 무등산 내 서식하는 대표 생태계교란생물은 돼지풀·애기수염·환삼덩굴·붉은귀거북이다. 이 생물은 공원 내 고유종 자생에 위협하고 있어 매년 제거 작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탐방객 출입과 자연 전파를 통해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산 외래종 동식물 제거 현황은 ▲2018년 1만2900㎡ ▲2019년 1만5520㎡ ▲2020년 1만9960㎡ ▲2021년 2만850㎡ ▲2022년 2만199㎡다.

#### ◇ 묘지이장·야영장 조성, 쾌적한 탐방 문화

무등산국립공원은 보다 쾌적한 탐방 문화를 위해 묘지 이장과 야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개인묘에 따른 산불발생과 셋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묘지 이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총 1191기를 이장했다. 현재 남아있는 묘지는 6478기다.

국립공원은 올해 218기를 더 이장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은 복구 화담동 291번지 일대에 야영장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말까지 '도심 속 휴식처' 조성을 목표로 화장실·샤워장 등을 갖춘 120동 규모의 야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엔 캠핑 트렌드를 반영한 이른바 '차박' 공간도 마련한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무등산 정상부 개장과 군부대 이전, 캠핑장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휴식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 광양제철소, 팔레트 자동복포장치 개발로 '물류 경쟁력' '안정성' 모두 잡았다

### 기존대비 복·개포작업 소요시간 90% 이상 단축



위 사진은 자동복포장치가 설치된 팔레트를 ET카(Elevation Transporter)가 싣고 있는 모습.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철강코일 수송 팔레트(Pallet)용 자동 복포장치를 개발·설치하며 물류시간 단축과 안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광양제철소에서 만들어져 출하를 앞두고 있는 철강 코일들은 수송 팔레트에 적재되어 압연공장에서 제품부두나 창고로 이송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가 오게 되면 철강제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철강코일을 빗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광양제철소는 직접 작업자를 투입해 철강코일마다 직접 방수포를 씌우는 방식으로 제품 손상을 방지해왔다. 기존 방식은 복·개포시 팔레트당 약 20~30

분기량의 작업시간이 추가 소요되어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광양제철소는 자바라식 자동복포 설비를 개발, 팔레트 상부에 설치해 이송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철강코일에 직접 복포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화 설비로 팔레트 상부 전체를 덮는 방식이기에 팔레트에 빗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특징과 기존대비 소요시간을 약 90%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장점이 있다.

아울러, ET카\*(Elevation Transporter)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개발돼 작업자의 편의성 또한 챙겼다.

특히, 복포작업이 완전 자동화됨에 따라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깊다.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이종순 계장은 "이번 자동복포장치 신설은 수작업을 제거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뜻 깊다"며, "개선작업을 함께한 동료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남도장터 유통 등 전문가 참여로 운영 효율 꺾인다

### 울 첫 정기회서 초대 대표이사 선임 등 4개 안건 의결

전남도는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27일 도청에서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운영 효율을 위한 수산·축산·유통 분야 전문가 이사 추가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 본격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사회 임원 등이 참석해 ▲초대 대표이사 선임 ▲이사 추가 선임 ▲2023년 세입·세출 예산 변경 승인 ▲재단 내부규정 제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선 김경호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재)남도장터는 재단을 이끌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초대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채용 공고 등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김경호 초대 대표이사는 순천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정책학과)을 수료했다. 광양시 부시장,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역임했으며 3월부터 2년 동안 (재)남도장터를 이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재단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수산과 축산 분야 전문가 및 유통



통 분야와 온라인 쇼핑물 운영 전문가 등 4명의 선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해 15명 이사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사업 계획과 예산 변경안 승인을 통해 2023년 전남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된 국내·외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사업을 재단에서 대행한다. 이로써 당초 출연금 20억 원과 국비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인 쇼핑물 운영 대행사업비 21억 원을 추가,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올해 재단과 쇼핑물을 운영한다.

이밖에 이사회 구성 및 소집, 의결 방법 등을 정한 이사회 운영규정과 직제·보수·인사·복무·보수 규정 등 재단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 총 18개 내부규정을 일괄 제정해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대위 고소득층	240,833원	411,111원	1.71배
4분위	125,531원	219,767원	1.75배
3분위	79,147원	138,571원	1.75배
2분위	48,103원	84,179원	1.75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47,143원	1.77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129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복합서비스 재단인 슬로리펀딩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